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대응 방안*

E-book Lending Service in Public Libraries: Issues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백 지 원 (Ji-Won Baek)**

목 차

- | | |
|---------------------------|----------------------|
| 1. 서론 | 4.1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원칙 |
| 2. 선행연구 | 4.2 종합 분석 및 핵심 요소 도출 |
| 3. 전자책 서비스의 부문별 시각 | 5.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
| 3.1 출판계 | 5.1 주요 쟁점 |
| 3.2 도서관계 | 5.2 대응 방안 |
| 4.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원칙과 핵심 요소 | 6.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의 시각을 반영한 전자책 서비스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계와 출판계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현행 전자책 대출 서비스에 관한 상반된 시각과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에 관해 발표된 5종의 원칙을 내용적으로 범주화하여 도서관계의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의 핵심 원칙 7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대상으로 출판계가 제기하는 주요한 문제점과 국내외의 주요 대응 방식의 사례를 대응시켜 현안별로 대립되고 있는 양상과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 사안별로 공공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이라는 사명의 측면과 도서관 전자책 대출 모델 개발에 관한 측면, 법적 제도 마련의 측면 등에서 향후 도서관계의 대응 방안을 논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book ecosystem, reveal a conflict and suggest the improvement strategies regarding e-book lending service in public libraries. For this, an extensive research was conducted concerning overall e-book issues and revealed the criteria for each sectors. The relationship and different view between publishing and library sector were presented. Then, the five public library e-book lending principles, developed by foreign national or international library associations, were analyzed. The seven main principles were derived and mapped to the current practice of publishers. As a result,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of the Korean public library were suggested,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mission of public library, development a standardized lending model, and the revision of law.

키워드: 전자책, 대출, 도서관, 공공도서관, 출판계

E-book, Electronic Book, Lending, Library, Public Library, Publisher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2012S1A5B5A07035667).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jw_baek@naver.com)

논문접수일자: 2014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8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8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113-135,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113>)

1. 서론

전자책은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고 다양한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많은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근래 정보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 추세와 맞물려 전자책은 전 세계적으로 그 보급과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각급 도서관에서도 전자책을 장서의 한 유형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전자책은 본질적으로 이용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반납이 필요치 않고, 동시에 무한대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호대차를 통해 거의 모든 전자책을 즉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책의 특성은 도서관이 전자책을 구입하고 서비스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전자책은 가격, 저작권, 유통구조, 수익 산정 및 배분 등 여러 문제에 관하여 콘텐츠 저작권자, 출판사, 유통 업체, 단말기 업체, 이동통신사 등 다양한 부문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처럼 전자책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의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이용자들이 차별이나 제약 없이 모든 유형의 지식과 정보에 무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에게 있어 전자책 서비스 문제는 다른 관중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입장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이냐에 상관없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 들어온 책

은 읽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정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영호 2013a). 그러나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출판계나 유통업계 등 전자책의 산업적 부문에서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전자책 생태계의 사업 부문의 이해관계와 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려는 공공도서관의 사명은 필연적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다.

그간 도서관에서는 전자책을 하나의 자원 유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장서관리 대상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거대 출판사나 유통사를 통해 콘텐츠와 목록 데이터, 전자도서관 솔루션까지 함께 구매하는 복합적인 서비스 상품의 하나 처럼 다루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도서관의 사명과 원칙에 맞게 운용되기 보다는 출판업계나 유통사의 사업 모델에 좌우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도서관이 전자책 생태계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종속성은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자책 환경에서도 도서관의 본질과 사명을 유지하고 문화 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문제를 점검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공공도서관의 전자책에 관한 관심이 주로 콘텐츠를 적절한 조건하에 구매하고 관리하는 실무적 측면에 있었다면, 이제는 전자책 환경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제약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관심과

진단,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에 있어 특히 출판계와 도서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도서관의 가치와 사명에 부합하고 운영 원칙에 적합한, 도서관의 시각을 반영한 전자책 서비스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현황자료와 논의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세계 주요국가의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 및 대처 방안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의 분석을 통해 특히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호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구체적인 요소와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쟁점들을 대상으로 향후 도서관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국내외의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된 수와 범위에 머물고 있다. 대신 외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현황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전자책 관련 현황보고서로는 미국의 Library Journal(2013), 호주의 BICC(2013), Primary Research Group(2013) 등이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The LIANZA Standing Committee on Digital Content and e-Lending 2013) 등이 자국의 도서관 관종별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비

즈니스 모델 등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Wischenbart 등(2013)은 미국 및 유럽 전역의 전자책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호주의 NSLA & CAUL(2014)는 북미와 유럽 6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분석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관점에서 제시된 현황 분석 자료로는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들이 제공하는 전자책 서비스의 현황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이용훈, 박상미 2013)가 있고, 출판계나 유통업계 등에서 조사한 분석 자료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각 업계나 관종을 대표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구모니카(2014)는 현재 밝혀져 있는 몇몇 국내 도서관의 전자책 현황 자료는 서비스 및 정책 인프라 구축과 독자 이용이 미미한 상태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의 각종 도서관 관련 협회 차원에서 전자책 서비스에 관련된 분석과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IFLA나 ALA의 경우 공공도서관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대출과 접근이라는 포괄적인 문제부터(Colomb, Röscher and Preisig 2013),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대출 권리와 관련된 각종 배경, 원칙, 출판사 및 대형 업체와의 계약 및 협상에 참고할 수 있는 평가 기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ALA 2012a; 2012b; 2013; IFLA 2013).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는 전자책 서비스에 관련된 공식적인 대책이나 심도 깊은 논의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반면, 출판계에서는 전자출판의 기본 문제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도

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를 다루거나 (정종호 2012; 양지열 2012), 전자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좌담 중 도서관 전자책 정책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류영호, 서정호, 이경훈, 현정환 2012).

한편,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하여 운영 모델의 필요성 역시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Woodward(2010, 81)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자원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과 같은 유형은 이미 성공적으로 전자도서관의 자원으로 통합된 반면, 전자책에 대해서는 출판업계와 사서들이 여전히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찾기 위해 분투중이라고 밝히고, 전자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도서관 운영 모델 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Pharo와 Learned Au(2011) 역시 주요 출판사가 공공도서관에 전자책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앞으로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 친화적인 모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들 간의 협력 및 출판사, 대행사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자치단체 단위에 적합한 효율적인 전자자료 공동서비스 모형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또한 이용훈과 박상미(2013)와 이지연(2014)은 새로운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이용자, 도서관, 출판계 등 부문 간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외국의 선행 연구 사례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에 관련된 다

양한 현황 분석 및 원칙 설정, 운영 모델에 관한 논의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근래 들어 각 협회나 국가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전자책 대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의 논의들은 전자책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간의 협력과 상생 모델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출판계의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도 논의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종합적으로 분석된 사례는 없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출판계와의 관계에서 실제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전자책 서비스의 부문별 시각

3.1 출판계

3.1.1 출판계의 우려

최근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자책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우려, 유통업계와 출판업계 사이의 투명한 정산 시스템 미비, 서체회사들의 과도한 로열티 요구 등 출판업계는 전자책 출판 및 유통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도서관과의 관계에 있어 출판계는 도서관에 한 번 납품된 도서는 무제한적으

로 영구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도서관을 통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전자책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려한다. 구매 행태의 측면에서도 지금과 같이 도서관이 서버와 장비 및 서비스 솔루션, 전자책 관리 솔루션 일체를 턴키 베이스로 납품 받거나 도서관 소유의 서버 장비에 솔루션과 전자책을 탑재하여 납품 받는 형태로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은 문화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저작권법 개념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정중호 2012).

또한 이렇게 구매한 전자책을 서비스하는데 있어 도서관들은 동일 콘텐츠의 중복구매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지자체 도서관의 네트워크화 및 회원 도서관간의 회원DB 연동 및 통합 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출판계는 이러한 방식의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가 B2C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작가와 출판사의 창작 의욕을 철저히 짓밟는,” 장기적으로는 출판문화를 소멸시키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정형선 2012).

실제로 우리나라 출판계는 국립중앙도서관이 2010년 6월부터 전국 800여개 작은도서관에서 3천여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2012년까지 전국 3~4천개의 작은도서관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계획을 ‘공짜 도서관 괴물’이라 칭하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한국출판인회의 2010, 106-109). 이 계획은 출판계의 심한 반대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혀 현재 884개관에 3,300여 종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정중호 2012).

외국의 출판계에서도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에 대해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공공도서

관에 전자책을 제공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최대 규모의 6개 출판사는 흔히 Big 6라고 불리며 미국 출판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OCLC 2013), 이들 출판사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난다. HarperCollins사는 2011년 공공도서관에 판매하는 신규 전자책 콘텐츠 1건당 최대 26번의 열람만을 허용하겠다는 판매 모델을 발표하면서 전자책 관련 업계와 도서관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Hadro 2011). Simon & Schuster사는 도서관에 맞는 사업 모델을 확립하지 못해서 도서관에서 자사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Bosman 2011). Macmillian과 Hachette사의 경우는 도서관에 제공하는 전자책에서 신간을 제외시키는 사업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Vinjamuri 2012; Maier 2014). Penguin사도 디지털 콘텐츠의 보안에 관한 염려 때문에 신규 전자책을 도서관에 제공하지 않았다(Italie 2011; Kelley 2012).

3.1.2 출판계의 대응

이러한 우려와 혼란 속에서 국내의 출판계에서는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에 관한 정책적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판계에서는 전자책이 기존의 종이책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관행을 따를 경우, 출판문화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출판사 주도의 전자책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대여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한국출판인회의 2010). 영국의 출판협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전자책 대출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The Publishers Association 2010). 이 두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국내외 출판계의 도서관 전자책 대출에 관한 지침

구분	한국출판인회의의 전자도서관 대여 정책인*	영국 The Publishers Association의 전자책 대출에 관한 성명서**
서비스 (판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타이틀 보유 기간과 대출 횟수를 제한함 • 파일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책, 한 부(copy), 한명의 이용자, 정해진 단기간 동안의 대여만을 라이선스로 허용함
보유 기간, 대출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보유 기간과 대출 횟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적용 • 기간이 만료되거나 최대 대출 횟수에 도달하면 이용 권한 자동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책은 규정된 기간 이후에는 만료되어 이용자의 기기에서 읽을 수 없어야 함
열람 방식 및 대출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PC와 단말기 등 도서관 내에서 열람, 대출 가능 • 도서관 밖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대출할 수 없음 • 도서관 소유의 전용 단말기에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단말기와 함께 대출하고 반납하는 방식에 대한 허용 가능성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도서관의 서비스 범위 내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지역에 기반한 회원제도 필요 • 다운로드 가능한 모델일 경우 도서관에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이용자의 기기로 옮겨야 함

* 한국출판인회의, 2010, p. 89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The Publishers Association, 2010.

이처럼 출판계가 전자책 대출에 관해 설정한 지침은, 종이책 환경에서 존재했던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협력과 상생 관계가 전자책 환경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는 HaperCollins사가 주장하였듯이 “전자책이 지배하는 21세기와 아날로그 텍스트 시대인 20세기의 비즈니스는 구별돼야 한다”는 출판계의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류영호 2013a).

한편, 최근 미국의 대형 출판사들 사이에서 도서관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추세도 파악할 수 있다. Hachette Book Group은 수년간 ALA의 관련 분야 전문가, 많은 지역도서관 및 뉴욕공공도서관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2013년 5월부터 신간서적을 포함한 모든 전자책을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제공한다고 발표했다(류영호 2013b). Penguin사와 Simon & Schuster사의 경우도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일정 범위의 공공도서관에 전자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Maier 2014; Greenfield 2014).

3.2 도서관계

3.2.1 도서관계의 우려

2012년 ALA 회장인 Maureen Sullivan은 대규모 출판사들이 도서관에 전자책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협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ALA 2012a). IFLA(2013)는 전자책의 대출 문제에서 도서관의 기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전자책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도서관 카드 소지자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것,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의 일부를 복사하는 것, 상호대차,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 등 4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염려는 여러 경로와 방식

으로 지적되고 있으며(Besen and Kirby 2012; Vasileiou, Rowley and Hartley 2012), 이들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출판사의 일부 혹은 전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출판사가 어떤 전자책 콘텐츠를 도서관 구독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개인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도서관에게 해당 전자책을 판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Hielmcrone, Maiello, Bainton and Bonnet 2012). 이는 신규 전자책의 도서관 납품을 거부하는 여러 미국 대형출판사들의 사례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 전자책을 도서관에 제공하는데 있어 지연기간(embargo)을 두는 것이다. 많은 해외 출판사가 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대출개시 시기를 개인 구매자에 비해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출판사의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전자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B2C 판매율이 저조해진 콘텐츠에 대해서 B2B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전자책 콘텐츠의 도서관 납품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도

서관연구소 2011, 128; 송이 2012, 74).

셋째, 출판사가 도서관에 판매하는 전자책에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Big 6 중 하나인 Random House사의 경우 도서관에 자사의 전체 전자책을 제공하지만, 최근 전자책 가격을 3배 가량 인상하였다(Maier 2014). 실제 이러한 높은 전자책 가격 문제에 주목하여, 미국의 Douglas County 도서관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가격 비교 보고서('Douglas County Libraries Report: Pricing Comparison')를 매달 발표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도서관에서 수요가 높은 베스트셀러 소설 부문의 2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종이책은 도서관 납품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1달러 내외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전자책은 도서관 납품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비해 최대 12배에 달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Douglas County Libraries 2013; 2014) (<표 2> 참조).

넷째, 전자책 이용에 본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물리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선 국내외 출판계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출판계는 불법복제와 수익성 잠식을 우려한 나머지 전자책 열람과 대출을 위해 반드시 도서관에

<표 2> 도서 형태별 도서관 판매 가격과 소비자 가격 비교 사례

형태	종이책				전자책					
	도서관 가격		소비자 가격		도서관 가격		소비자 가격			
출판·유통사	Baker & Taylor	Ingram	Amazon	Barnes & Noble	Overdrive	3M	Bilbary	Amazon	Barnes & Noble	
저작	<i>Cuckoo's Calling</i> *	\$14.40	\$14.30	\$15.19	\$15.49	\$78.00	\$78.00	\$12.99	\$6.50	\$6.50
	<i>The Goldfinch</i> **	\$16.62	\$16.50	\$15.41	\$16.66	\$90.00	\$90.00	-	\$7.50	\$14.99

* New York Times의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 (2013. 9. 3. 기준)

** New York Times의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5위 (2014. 1. 3. 기준)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전자책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며 공공도서관의 기본 표준에도 어긋난다. 2013년 한국도서관기준의 공공도서관 기준 중 1.3.1절 자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인터넷 정보기술을 활용한 접근전략도 다양하게 모색하여야 한다”(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 35)고 하였다. 또한 1.6.2절 참고·정보서비스에 관한 조항에서는 전자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온라인 정보접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 49-50).

따라서 출판계가 제시한 전자책 대출 지침의 물리적 접근 요구는 “사실상 전천후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의 잠재성을 의도적으로 사장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도서관연구소 2011, 130) 것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공적 채널로서 전자책 환경에서도 국민의 정보 접근과 활용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공도서관의 입장은 출판계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2.2 도서관계의 대응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별 대응으로 자국의 환경에 맞는 전자책 대출 모델이나 전자책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2013년에 진행된 영국, 프랑스, 캐나

다, 호주 등 4개국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3〉 참조).

이러한 각국의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정부 기관 또는 국가적 수준의 도서관협회, 출판협회 등 해당 국가에서 각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의 주도하에 관련 부문과의 협력적 노력을 바탕으로 전자책 대출이나 공급의 표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즉, 영국은 정부 기관인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의 주도로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핵심 사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Sieghart 2013). 프랑스 역시 정부 기관인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의 주도로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프랑스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대출과 관련하여 현황과 향후 전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IDATE 2013). 캐나다는 eBOUND Canada가 대표하는 캐나다의 영어 출판협회와 Canadian Urban Libraries Council(CULC)이 대표하는 캐나다 공공도서관계가 협력하여 캐나다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캐나다식의 해결방안을 만들하고자 하였다(Canadian Urban Libraries Council 2013b). 호주의 Book Industry Collaborative Council(BICC)에서는 호주 정부가 설립한 BISG(Book Industry Strategy Group)가 제안한 단일의 일관성 있는 도서관 전자책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BICC 2013).

둘째, 결과의 측면에서 사업이 종료된 3건의 사례가 모두 실패로 끝났거나 결론이 유보되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대출을 위한 표준화된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표 3〉 각국의 대응 방안 모색 사례

구분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주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eBOUND Canada, Canadian Urban Libraries Council	Book Industry Collaborative Council
목적	도서관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핵심 사안 규명	프랑스에 적합한 균형 잡힌 도서관 전자책 대출 프레임워크 제시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을 위한 캐나다식의 모형 개발	단일의 일관성 있는 도서관 전자책 공급 모델 개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도서관은 전자책에 무료로 관내 접근과 원격 접근을 허용해야 함 기존의 공공대출권이 전자책의 원격접근에까지 확대되어야 함 전자책 대출 환경에서 출판업계의 이익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함 비즈니스 모델과 이용자 행태를 실험하는 시범 연구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사용을 위한 타협안을 찾는 것 필요 출판계는 최신 저작을 포함하여 일관성 있는 전자책 제공을 해야 함 컨소시움 라이선스가 허용되어야 함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 전자책 대출을 위한 표준화된 모델은 존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조건: 공공도서관의 현재 검색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 전자책의 구매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시스템 유통업체 조건: 출판사로 하여금 콘텐츠에 제약 없이 모든 콘텐츠를 도서관에 제공하도록 해야 함. 계약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와 이동의 권한을 제공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에 전자책을 공급하는 것은 저자, 출판사, 유통사, 도서관 사이의 개별적이고 상업적인 결정에 좌우되므로 비밀관성이 강함 다국적 기업과 관련되는 경우 호주 자회사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상업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단일한 공급 모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함을 파악
특성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 사업을 2014년 12월 까지 진행 전자책의 구매, 대출과 관련된 투명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산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책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전자책의 비즈니스 모델 표준화 불가함 파악 표준화 시도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변수의 다양성으로 인해 모형 개발에 실패 향후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한 도서관 전자책 공급 모델 개발 실패 대신 일관된 공급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 도출

특히 지금 시점은 모델의 표준화를 시도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표준화 노력을 유보하였다. 캐나다의 CULC는 시범 사업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조건과 유통업체 조건의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의 실패를 공표하였다(Canadian Urban Libraries Council 2013b). 호주의 사례 역시 실제 산업 부문의 실무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개별 상업 계약 방식이 매우 독립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단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BICC 2013, 33-34). 2014년 연말까지 진행될 영국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인쇄책과 전자책의 대출 행

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과 구매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자, 대행업자, 도서관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1년 동안의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 여기서 산출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이 근래 도서관에서의 표준적인 전자책 대출 혹은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각국의 시도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지금 시점에서 표준화 작업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자책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관계된 각 부문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4.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원칙과 핵심 요소

4.1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원칙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2년 동안 IFLA와 ALA를 비롯한 각국 도서관 협회에서는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먼저 IFLA(2013)에서는 전자책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공공대출권 및 전자책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였다. 2013년 2월 'Principles for Library eLending'이 IFLA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이후 전자책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2013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전자책의 입수,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 접근성, 액세스의 지속성, 보존, 이용자 사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였다. 이는 도서관과 출판사, 저자가 도서관의 전자책 입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한다는 사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IFLA 2013).

ALA는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회원들의 긴급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에 'E-BOOK business models for public libraries'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전자책 대출에 있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원칙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첫째, 대중이 구매 가능한 모든 전자책은 도서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둘째, 구매한 전자책은 다른 전송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제한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전자책의 발견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판사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와 관리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ALA 2012b).

또 하나의 사례는 ALIA(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의 Ebooks and eLending reference group이 2013년 5월 'ALIA position statement on ebooks and eLending'을 통해 발표한 전자책 및 전자책 대출에 관한 원칙이다(ALIA 2013). ALIA의 원칙은 도서관, 저작권자, 출판사, 그리고 유통사 사이에 상업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조화롭게 합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ALIA의 원칙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 7가지와 운영원칙 7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최우선적인 원칙은 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에 관한 것이고 운영원칙은 주로 전자책 생태계에서 출판계, 대행사,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운영상 지켜야 할 실무 원칙에 해당된다.

또한 EBLIDA(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 Documentation Associations)는 2012년 발표한 'EBLIDA Key Principles on the acquisition of and access to E-books by libraries'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이해 관계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도서관이 전자책을 구입하고 서비스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조건 다섯 가지를 천명하였다. 이는 입수, 액세스, 지속적인 접근과 장기 보존, 메타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가격 등의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BICC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도서관에 전자책을 제공하는 단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파악하고, 대신

이러한 일관된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원칙 5가지를 제안하였다(Book Industry Collaborative Council 2013, 183-184).

4.2 종합 분석 및 핵심 요소 도출

이상의 원칙을 통합적으로, 또한 상호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 중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ALA(2012b)의 3가지 원칙과 ALIA(2013)의 최우선 원칙 7가지를 종합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IFLA(2013), EBLIDA(2012), ALIA(2013), BICC(2013)에서 발표한 도서관 전자책 대출을 위한 실무적인 원칙을 내용적으로 범주화하고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였다(〈표 4〉 참조).

상호 비교의 결과, 가장 많은 사례에서 중복적으로 등장한 세부 요소는 시간적 지연 없는 서비스(4회), 액세스의 지속성 보장(3회) 등이었으며,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1~2회 등장하여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들 세부 요소를 내용적으로 재 범주화하여 도출한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핵심 원칙은 1) 시기적으로 출간 즉시 서비스가 되어야 하고, 2) 콘텐츠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며, 3) 동시 이용자 수, 이용 허용 범위 및 접근 방법, 가격 책정 등의 측면에서 도서관 서비스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선택되어야 하고, 4) 이용 편의성이 있어야 하고, 5) 도서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법률적 보호 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6) 기기 독립성과 변환 권

〈표 4〉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원칙과 핵심 요소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원칙		사례**				핵심 요소
		I	E	A	B	
원칙1*	개인의 전자책 사용에 비해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개시 시기에 지연이 없어야함	√	√	√	√	서비스 시기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개인 구매자가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는 도서관에서도 이용 가능해야 함	√	√			콘텐츠의 범위
	하나의 콘텐츠에 대한 동시 이용을 허용해야 함		√			동시 이용, 이용 범위 및 접근 방법
	등록된 이용자에게 원격 접근을 통한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함		√			
	합리적인 가격 설정, 투명한 가격 설정, 선택 가능한 다양한 구매 모델 옵션이 있어야 함			√		
	출판사와 유통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시행성과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함				√	
	상호대차 액세스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옵션이 있어야 함		√			
	쉬운 검색과 이용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이용 과정 설정			√		이용 편의성
	합리적인 조건과 가격으로 전자책에 액세스 제공	√				가격 책정
	전자책의 가격은 동일한 저작의 인쇄본 버전의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합당한 재정적 보상을 받아야 함			√	√	
	전자책 가격은 출판년도에 따라 감소해야 함		√			
	전자책의 라이선스와 구매옵션은 저작권의 제한을 준수하고 법률로서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허용된 예외조치를 준수해야 함	√				공공성의 법적 보장
전자책에 대한 라이선스의 계약 조건은 저작이 공공의 영역으로 진입하는데 관련된 어떠한 법적인 조항 보다 우선할 수 없음		√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원칙		사례**				핵심 요소
		I	E	A	B	
원칙2	특정 전자책에 종속적이지 않고 표준 접근성 준수하여 기기 개발	√				기기 독립성 및 변환권리
	출판사는 호환성 있는 포맷으로 제공해야 함		√			
	기기독립성이 있어야 함	√				
	전자책의 저장 권한은 기술적 변화에 따라 전자책을 다른 플랫폼으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야 함		√			
	도서관은 영구 저장 및 이용의 옵션을 가져야 함		√			영구저장 및 액세스의 지속성
	장기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함	√				
	구매하거나 라이선스를 획득한 전자책에 대한 액세스를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허용할 수 있어야 함		√	√	√	
영구저장과 사용 조건하에서는 그 콘텐츠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시점에서 전자책에 대해 제한 없는 액세스가 보장되어야 함		√				
원칙3	전자책은 메타데이터와 함께 공급되어야 함		√			메타데이터 운용
	도서관은 목록 시스템에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함		√			
	다른 메타데이터와 연계하여 전자책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기타	전자책 생태계에서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립			√		역할정립 및 독립성
	도서관의 장서정책은 외부의 이해관계에 의해 약화되지 않아야함			√		
	모든 포맷의 책에 대하여 독서 문화를 증진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함				√	
	전자책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함	√		√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는 도서관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하고 도서관에 적용하는 데이터 보호 규제에 합당해야 함		√			
	이용자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 보호 규제에 맞게 삭제되어야 함		√			
	출판사와 서비스 제공자는 도서관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됨			√		
장애인을 위한 포맷 변경에 대해 출판사와 도서관은 협력해야 함		√			장애인 지원	

* ALA(2012b)에서 제시한 원칙 1~3 및 추가적인 기본 원칙

** I: IFLA(2013), E: EBLIDA(2012), A: ALIA(2013), B: BICC(2013)

리를 가져야 하며, 7) 영구 저장 및 액세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8) 원활하고 효과적인 메타데이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9)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 정립 및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10)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11) 장애인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5.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5.1 주요 쟁점

앞서 도서관 중심으로 작성된 원칙 중 특히 출판계와의 관계에서 실무적으로 상호 관계 정립이 필요한 핵심 원칙을 7개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원칙별로 현재 출판계가 제기하는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주요 문제와 그에 따른

〈표 5〉 도서관계의 핵심 원칙에 대비되는 출판계의 입장

도서관계가 설정한 핵심 원칙	출판계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	출판계의 대처 방식(사례)*
출간 즉시 도서관에서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함	도서관 서비스로 인한 개인 구매자 감소에 대한 우려, 법률적 제도 마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저작권, 출판권, 전송권의 침해 우려	신간에 대한 엠바고 설정
도서관에 제공되는 콘텐츠에 제한이 없어야 함	개인 구매자 감소에 대한 우려와 보안에 관한 우려	신간은 도서관에 제공하지 않음
저작권자 및 출판사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도서관에도 적합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 필요	전자책 납품 유통 관행으로 인한 콘텐츠 생산자와 출판사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	제공하는 콘텐츠에 제한을 두거나 도서관 판매가를 개인 소비자 가격 대비 1.5~12배 까지 높게 책정
이용 편의성, 기기 독립성 및 변환 권리 보장	전자책 제작 방식 및 주체의 분산으로 인한 플랫폼 난립과 과도한 비용 지출, 기술표준 미준용으로 인한 호환성 문제 발생	E-PUB와 같은 표준 DRM을 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DRM 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호환성 떨어짐
도서관 서비스에 친화적인 라이선스 옵션 필요	전자책 서비스 범위 미설정으로 인한 파일 불법 유출의 가능성, 도서관 간의 상호 연계 어려움 등의 문제 발생	도서관에 전자책 제공 자체를 거부하거나 직접 방문 이용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제약을 둠
영구 저장 및 액세스의 지속성 보장	도서관이 전자책을 고정자산으로 취득하여 영구적으로 소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배, 도서 및 콘텐츠 산업 전반에 악영향	도서관에 전자책 판매 거부하거나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구매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일부 저작을 선정하여 제공
도서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과 서비스 등 도서관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법률적 조치 우선시	관련 법령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성을 앞세운 현행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방식은 관련 법률을 침해	신규 저작에 대한 엠바고 설정, 도서관에 대한 판매 거부, 이용 제한, 원격접근 금지 등 DRM과 라이선스를 통한 여러 제약 설정

* 구모니카(2011), Besen and Kirby(2012), 류영호(2013b), 국내의 사례 분석 결과 등을 종합

대처 방식을 대응시킴으로써 양측의 시각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표 5〉 참조).

분석의 결과, 도서관 주도의 핵심 원칙과 이에 대응시킨 출판계의 입장은 모든 항목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현재 출판계가 대처하는 방식은 도서관계에서 제시하는 전자책 서비스의 기본 원칙에 크게 어긋나므로,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계의 입장을 반영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5.2 대응 방안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대립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전자책 출판·유통의 시장 수익성과 직결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동시에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도서관계의 접근은 특히 도서관의 가치에 관한 인식의 정립 및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률 개정 등의 실질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도서관이 전자책 환경에서도 지속

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을 확인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도서관의 사명과 그러한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공공도서관 이용자 서비스의 기본 원칙(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 특별위원회 2013, 25, 47)이 전자책 환경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높은 가격조건 하에서 제한적인 콘텐츠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전자책으로만 출판되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경우,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지식정보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전자책 환경에서도 공공도서관의 본질을 유지하고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책 서비스의 원칙은 전자책 환경에서 바뀐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전송 방식, 이용자의 정보 이용 방식을 반영하고, 도서관이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전자책 업무 운영과 서비스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 혹은 대표 협회 등이 이미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위한 원칙을 설정하고 표준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도서관계의 입장을 천명하고 전자책 서비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국내외 출판계는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업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ALA를 비롯한 외국의 각종 도서관계 역시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이용에 관한 상세한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의 원칙을 발표하고, 라이선스 계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평가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도서관의 목표와 이해를 우선 고려하기 보다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전자책 사업 모델을 선택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도서관계가 전자책을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로서 구매하고, 도서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자책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전자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성의 측면에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IFLA(2012)는 공공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의 문제는 사서들만의 문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대중과 정치인들의 이슈가 되도록 하여 시민들이 정보에의 자유로운 공공적 접근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ALA는 도서관에 판매되는 전자책의 높은 가격과 콘텐츠의 제약 때문에 현재의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충분한 장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3년 6월 "Authors for Library Ebooks"라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ALA는 이 캠페인에서 도서관을 통해 전자책에 동등하게 액세스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서와 독자들 외에 저작권자인 저자들의 참여를 더하고자 하였다. 이 캠페인에서는 도서관이 전자책을 구매하고 대출할 수 있게 될 때 저자들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명시하고 있다(ALA 2013). 이를 통해 출판사, 저자, 일반 대중들에게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라는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지는 의도를 가

지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계에서는 전자책 시대에도 지속되어야 할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사회 각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인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별 도서관에서는 수서의 개념을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FAIFE(IFLA’s Committee o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는 도서관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콘텐츠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 서비스를 위하여 DRM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도서관이 전자책의 소유를 주장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주요하게 제기하였다. 소유권 보다는 오히려 도서관이 정보와 지식, 그리고 문화자원에 대하여 공공 접근을 제공하는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시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FAIFE 2013).

국내에서도 국립디지털도서관이 모든 전자책을 납본 받음과 동시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소유개념의 수서를 하고, 개개의 공공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가 국립디지털도서관 서버에 접근하여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오지은 2014, 50). 이처럼 전자책이라는 자원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장서개발과 관리의 개념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책 환경에 보다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현황 분석 데이터

를 수집하고 운영 데이터를 산출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NSLA & CAUL(2014)는 북미와 유럽 6개국에서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국이 이용자의 대출 패턴과 여러 전자책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익명의 데이터를 충분히 모아 분석한 것이 갖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 많은 상업적 라이선스와 가격 모델이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이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피하겠다는 측면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작용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NSLA and CAUL 2014, 37).

우리나라 도서관계도 출판계와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구체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전자책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합리적인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와 원활한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전자책과 관련하여 저작권, 출판권, 전송권 등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거의 전자책 계약 및 서비스 관행에 따라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행 방식은 저작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양지열 2012). 따라서 향후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구 저장시 복제, 전송,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복제 활용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과 합의가 필요하다.

Rosenblatt(2011)는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 문제는 도서관측의 적극적인 법 개정 대응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IFLA Principles on eBooks in Libraries(2013년 8월 16일 개정)에서도 도서관에 전자책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출판사와 저자에 대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도서관에서 전자책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률적인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BLIDA(2014) 역시 "The Right to E-read" 캠페인을 통해,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슈화하고 입법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벌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2년 3월 15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별도의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을 통한 전자책의 복제 및 전송 권리 인정, 온라인 대출서비스를 위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 필요성, 전자책에 대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대한 해석, 출판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판권권 및 공공대출권의 도입에 관한 문제와 법률적 해석 등이 논의된 바 있다(김찬동 2014).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부문 간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조율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파

악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파악된 주요 쟁점 사안들은 특히 도서관이라는 공공 서비스 영역과 출판업이라는 사업 영역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서로의 가치와 목적이 상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자책 대출의 원칙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공공대출권, 출판사에 대한 권리 보장, 대출개시 시기를 늦추는 등 저작자에 대한 배려 문제는 사실상 종이책의 시대에도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화두가 되었던 주요한 문제들이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즉, 이들은 사실상 전자책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전자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관계자간의 합의가 부족하고, 합의에 바탕이 될 만한 제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상반된 시각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법적 측면 등의 다각적인 방면에서 조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자, 출판사, 유통업체, 도서관 등이 서로 만족할만한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 도서관계의 전자책에 관한 주된 관심은 대개 가격이나 이용 조건 등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서관 장서로서 전자책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전자책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근거와 지식을 바

탕으로 전자책 라이선스 협상에 임하여 전자책 환경에서도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책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가치와 기능을 유

지하면서 전자책 생태계가 선순환적인 구조를 이루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구모니카. 2011. 전자책 도서관 유통 정책 왜 필요한가! 전자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콘텐츠 전문위원 칼럼. [online] [cited 2012. 5. 4.]
 <<http://e-kpc.tistory.com/category/전문위원%20컬럼>>
- [2] 구모니카. 2014. 공공적 차원에서 B to B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정책·기술·홍보 인프라 구축 필요: 전자도서관 생태계 조성의 주체로서 도서관의 능동적 대처 제안.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집』, 33-38.
- [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도서관 정책 자료. “일본 문부과학성 ‘주요 외국 공공도서관 실태조사 분석-①, ②.’” 『지금 도서관에서는』, 3~4호. 2007. 10. 18~11. 6. [online] [cited 2014. 6. 18.] <http://www.nl.go.kr/krili/webzine/pdf/policy_1018.pdf>
 <<http://www.nl.go.kr/krili/webzine/1031.html>>
- [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자치단체단위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공동서비스 기본모형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5] 김찬동. 2014. 전자책 공공 수요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법률 제언.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집』, 51-53.
- [6] 류영호, 서정호, 이경훈, 현정환. 2012. 전자출판의 비즈니스 모델은 있는가. 전자책 전문가 좌담. 『기획회의』, 331: 18-50.
- [7] 류영호. 2013a. 디지털 시대, 도서관의 변화와 디지털 아카이빙. 『기획회의』, 345: 66-73.
- [8] 류영호. 2013b. DRM의 의미와 DRM free에 대한 논쟁. 『기획회의』, 347: 60-66.
- [9] 문화체육관광부. 2014.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online] [cited 2014. 6. 15.]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570>
- [10] 송이. 2012. 『대학도서관 전자책 장서개발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11] 양지열. 2012. 법은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 『기획회의』, 330: 42-45.
- [12] 오지은. 2014.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발전적 전략 모색에 관한 공공도서관의 입장.

-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집』, 49-50.
- [13] 이용훈, 박상미. 2013.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발표자료』, 69-81.
- [14] 이지연. 2012. 디지털 정보환경에서의 전자출판 산업과 도서관의 협력관계 모색. 『전자출판의 진화, 도서관의 미래를 전망하다』. 2012 독서의 해 기념 심포지엄 II 발표자료, 45-60.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15] 이지연. 2014.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발전적 전략 모색.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3-24.
- [16] 정중호. 2012. 도서관의 변화가 가져온 것들 -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현황과 이슈. 『기획회의』, 330: 37-41.
- [17] 정형선. 2012. B2B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쟁점과 현안,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기획회의』, 330: 32-36.
- [18]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편. 2013.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9] 한국출판인회의. 2010. 『출판사를 위한 전자책 가이드북: 전자책에 대해 출판사가 꼭 알아야 할 55가지』. 서울: 한국출판인회의.
- [20] ALA. 2012a. "An Open Letter to America's Publishers." [online] [cited 2013. 6. 22.] <<http://www.ala.org/news/2012/09/open-letter-america%E2%80%99s-publishers-ala-president-maureen-sullivan>>
- [21] ALA. 2012b. "E-BOOK business models for public libraries." [online] [cited 2013. 6. 20.] <<http://connect.ala.org/files/80755/EbookBusinessModelsPublicLibs.pdf>>
- [22] ALA. 2013. "EBook business models: a scorecard for public libraries." [online] [cited 2013. 12. 4.] <http://www.districtdispatch.org/wp-content/uploads/2013/01/Ebook_Scorecard.pdf>
- [23] ALIA. 2013. "ALIA position statement on ebooks and elending." [online] [cited 2013. 11. 15.] <<https://www.alia.org.au/sites/default/files/documents/advocacy/ALIAebooksandelendingposition130522.pdf>>
- [24] Besen, Stanley M. and Kirby, Sheila Nataraj. 2012. "E-books and libraries: an economic perspective: report to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3. 9. 24.] <http://www.ala.org/offices/sites/ala.org.offices/files/content/oitp/publications/booksstudies/ebooks_libraries_economic_perspective.pdf>
- [25] BICC. 2013. *Book Industry Collaborative Council final report*. [online] [cited 2013. 12. 10.] <http://www.senatorkimcarr.com/uploads/1/8/8/8/18881120/book_industry_collaborative_

- council_final_report_2013.pdf)
- [26] Bosman, Julie. 2011. "Kindle Connects to Library E-Books." *New York Times*, September 21, 2011. [online] [cited 2013. 6. 2.]
 <<http://www.nytimes.com/2011/09/22/books/amazons-kindle-to-make-library-e-books-available.html?ref=arts>>
- [27] Colomb, Philippe, Hermann Rösch and Amélie Vallotton Preisig. 2012. "Libraries, eLending, and the Future of Public Access to Digital Content." Prepared by Civic Agenda and presented to IFLA in The Hague. [online] [cited 2013. 5. 20.]
 <<http://www.ifla.org/files/assets/hq/topics/e-lending/thinkpiece-on-libraries-elending.pdf>>
- [28]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2013a. "An Independent Review of E-Lending in Public Libraries in England." [online] [cited 2013. 12. 1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n-independent-review-of-e-lending-in-public-libraries-in-england>>
- [29] Douglas County Libraries. 2014. "Douglas County Libraries Report Pricing Comparison as of January 3, 2014." [online] [cited 2014. 2. 20.]
 <<http://evoke.cvlisites.org/files/2014/04/DCL-Pricing-Comparison-4-3-14.pdf>>
- [30] Douglas County Libraries. 2013. "Douglas County Libraries Report: Pricing Comparison." 2013. [online] [cited 2013. 12. 23.]
 <<http://evoke.cvlisites.org/files/2013/09/DCL-Pricing-Comparison-9-3-13.pdf>>
- [31] EBLIDA. 2012. "EBLIDA Key Principles on the acquisition of and access to E-books by libraries." [online] [cited 2013. 4. 13.]
 <http://www.eblida.org/Special%20Events/Key-principles-acquisition-eBooks-November2012/GB_English%20Version%20Key%20Principles.pdf>
- [32] EBLIDA. 2013. "The Right to E-read" campaign. [online] [cited 2013. 9. 18.]
 <<http://www.cilip.org.uk/cilip/advocacy-campaigns-awards/advocacy-campaigns/ebooks/let-libraries-lend-ebooks>>
- [33] "Ebook Usage in U. S. Public Libraries." *Library Journal*, 2012. [online] [cited 2013. 5. 2.]
 <<http://www.thedigitalshift.com/research/ebook-usage-reports/public/>>
- [34] "Ebooks the New Normal: EBook Penetration & Use in US Public Libraries." *Library Journal*, 2011. [online] [cited 2013. 12. 5.]
 <<http://www.thedigitalshift.com/research/ebook-penetration/>>
- [35] FAIFE. 2013. "Comment from FAIFE-Perspective." [online] [cited 2013. 12. 10.]
 <<http://www.ifla.org/publications/libraries-e-lending-and-the-future-of-public-access-to>>

- digital-content>
- [36] Greenfield, Jeremy. 2014. "Simon & Schuster Expands Ebook Pilot to Select U. S. Libraries and Entire Catalog." [online] [cited 2014. 2. 21.]
<<http://www.digitalbookworld.com/2014/simon-schuster-expands-ebook-pilot-to-select-u-s-libraries-and-entire-catalog/>>
- [37] Hadro, Josh. 2011. "HarperCollins puts 26 loan cap on ebook circulations." *Library Journal*. Feb 25, 2011. [online] [cited 2012. 11. 26.]
<http://www.libraryjournal.com/lj/home/889452-264/harpercollins_puts_26_loan_cap.html.csp>
- [38] Hielmcrone, Harald von, Rosa Maiello, Toby Bainton and Vincent Bonnet. 2012. "E-publishing and the challenges for libraries." [online] [cited 2013. 5. 24.]
<http://www.eblida.org/Experts%20Groups%20papers/EGIL-papers/02_EBLIDA_E-publishing%20and%20the%20challenge%20for%20libraries_Background_information_Public_version.pdf>
- [39] IDATE. 2013. Report on e-book lending in libraries. [online] [cited 2013. 12. 28.]
<<http://ebookadvocacy.wordpress.com/tag/idate/>>
- [40] IFLA. 2012. IFLA E-Lending Background Paper. [online] [cited 2013. 7. 24.]
<<http://www.ifla.org/files/assets/clm/publications/ifla-background-paper-e-lending-en.pdf>>
- [41] IFLA. 2013. IFLA Principles for Library eLending. [online] [cited 2013. 11. 28.]
<<http://www.ifla.org/node/7418>>
- [42] Italie, H. 2011. "Penguin suspends library e-books, citing security." Associated Press, November 22, 2011. [online] [cited 2012. 10. 26.]
<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iG1ZGb_Ig5QbRaNPSZMrF3wuybDg?docId=968a399491194636bc0820bb54437fa8>
- [43] Jones, Sharon, Ole Gunnar Evensen, Julia Gelfand, Glenda Lammers, Lynn Sipe and Nadia Zilper. 2012. "Key issues for e-resource collection development: a guide for libraries." IFLA Acquisition & Collection Development Section. [online] [cited 2013. 7. 24.]
<<http://www.ifla.org/files/assets/acquisition-collection-development/publications/Electronic-resource-guide.pdf>>
- [44] Kelley, Michael. 2012. "ALA, Authors Guild, 3M Weigh In on Penguin-OverDrive Dispute." *Library Journal*, February 10, 2012. [online] [cited 2013. 6. 20.]
<<http://www.thedigitalshift.com/2012/02/ebooks/ala-authors-guild-3m-weigh-in-on-penguin-overdrive-dispute/>>
- [45] *Library Journal*, 2013. *Survey of Ebook Usage in U. S. Public Libraries*. [online] [cited 2013.

12. 29.] <<http://www.thedigitalshift.com/research/>>
- [46] Maier, Robert C. 2014. "Big Six Publishers and Library Lending." [online] [cited 2014. 2. 4.] <<http://www.americanlibrariesmagazine.org/sites/americanlibrariesmagazine.org/files/content/BigSixEbookTerms011714.pdf>>
- [47] National and State Libraries of Australasia (NSLA) and the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CAUL). *ELENDING LANDSCAPE REPORT 2014*. [online] [cited 2014. 4. 6.] <<https://www.alia.org.au/sites/default/files/publishing/ALIA-Elending-Landscape-Report-2014.pdf>>
- [48] OCLC. 2013. "The big shift: Public Library Strategies for Access to Information in Any Format." [online] [cited 2013. 11. 14.] <http://www.oclc.org/content/dam/campaign-landing-pages/en/214936_the-big-shift.pdf>
- [49] Pharo, Mollie M. and Learned Au, Maria. 2011. "E-books and the public library: the Evansville Vanderburgh Public Library experience." *Information standards quarterly*, 23(2): 16-20. Special Issue: Views of the ebook renaissance. [online] [cited 2013. 2. 23.] <http://www.niso.org/publications/isq/2011/v23no2/pharo/IP_Pharo_Au_EVPL_isqv23no2.pdf>
- [50] Primary Research Group. 2010. *Library use of ebooks 2011 edition*. [S.l. : s.n.].
- [51] "Public Access to Digital Content" [online] [cited 2013. 12. 2.] <<http://www.ifla.org/files/assets/hq/topics/e-lending/thinkpiece-on-libraries-elending.pdf>>
- [52] "Survey of Ebook Penetration & Use in U.S. Public Libraries." *Library Journal*, 2010. [online] [cited 2013. 12. 5.] <http://c0003264.cdn2.cloudfiles.rackspacecloud.com/Public%20Library%20Ebook%20Report_2.pdf>
- [53] The LIANZA Standing Committee on Digital Content and e-Lending. 2013. LIANZA E-book Issues Paper. [online] [cited 2013. 12. 22.] <http://lianza.org.nz/sites/lianza.org.nz/files/lianza_standing_committee_on_e-content_and_e-lending_e-book_issues_paper.pdf>
- [54] The Publishers Association. 2010. "PA statement regarding our position on library e-lending." [online] [cited 2013. 6. 4.] <http://www.publishers.org.uk/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55:pa-statement-regarding-our-position-on-library-e-lending&catid=80:general-news&Itemid=1404>
- [55] Vasileiou, Magdalini, Jennifer Rowley and Richard Hartleyb. 2012. "The e-book management

framework: The management of e-books in academic libraries and its challeng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 282-291.

- [56] Vinjamuri, David. 2012. The Wrong War Over eBooks: Publishers Vs. Libraries. [online] [cited 2013. 2. 25.]

〈<http://www.americanlibrariesmagazine.org/sites/americanlibrariesmagazine.org/files/content/BigSixEbookTerms011714.pdf>〉

- [57] Wischenbart, Rudiger et al. 2013. *The Global ebook report*. [online] [cited 2013. 11. 23.] 〈http://www.wischenbart.com/upload/Global-Ebook-Report2013_final03.pdf〉.

- [58] Woodward, Hazel. 2010. "E-books: business planning for the digital library." in Collier, Mel ed. *Business planning for digital libraries: international approache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umonica. 2011. A study on the digital library e-book service strategies. e-KPC column. [online] [cited 2012. 5. 4.] 〈<http://e-kpc.tistory.com/category/전문위원%20컬럼>〉
- [2] Kumonica. 2014. B to B digital library e-book service in the public service perspective. A discussion paper on vitalization of e-book publication, 33-38.
- [3] KRILI. 2007. Issues on Library Policy.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Survey and analysis on the foreign public libraries ①, ②." *Now @Library*, vol. 3~4, 2007. 10. 18~11. 6. [online] [cited 2014. 6. 18.] 〈http://www.nl.go.kr/krili/webzine/pdf/policy_1018.pdf〉
〈<http://www.nl.go.kr/krili/webzine/1031.html>〉
- [4] KRILI. 2011. *A study on a collaborative e-book service model*. Seoul: KRILI.
- [5] Kim, Chan Dong. 2014. Some issue and legal advice on vitalization of e-book public needs. A discussion paper on vitalization of e-book publication, 51-53.
- [6] Ryu, Young Ho et al. 2012. Is there any e-publication business model? *Planning Meeting*, Biweekly magazine of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331: 18-50.
- [7] Ryu, Young Ho. 2013a. "Digital age, the change of library and digital archiving." *Planning Meeting*, Biweekly magazine of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345: 66-73.
- [8] Ryu, Young Ho. 2013b. "The meaning of DRM and the DRM free issue." *Planning Meeting*, Biweekly magazine of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347: 60-66.
- [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Manual for standard contracts on publication.

- [online] [cited 2014. 6. 15.]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570〉
- [10] Song, Yi.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book Collection*. Master's degree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11] Yang, Ji Yeol. 2012. "Legal issue of e-book service at libraries." *Planning Meeting*, Biweekly magazine of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330: 42-45.
- [12] Oh, Ji Eun. 2014. "A strategies for e-book use in public libraries: a public library's perspective." *A discussion paper on vitalization of e-book publication*, 49-50.
- [13] Lee, Yong Hoon and Park, Sang Mi. 2013. "A study on the public library e-book service and improvement: focused on Seoul." *2013 Proceeding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69-81.
- [14] Lee, Jee Yeon. 2012.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publication industry and libraries in digital information environment." *Symposium of evolution electronic publication and the futre of libraries*, 45-60.
- [15] Lee, Jee Yeon. 2014. "Strategies for the e-book use in public libraries." *A presentation on vitalization of e-book publication*, 3-24.
- [16] Jeong, Jong Ho. 2012. "The current status and issue of library e-book service." *Planning Meeting*, Biweekly magazine of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330: 37-41. 2012. 10. 20.
- [17] Jeong, Hyung Sun. 2012. "B2B strategy, what is the problem?" *Planning Meeting*, Biweekly magazine of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330: 32-36.
- [18] Korean Library Association Committee of Korean Library Standard ed, 2013. *2013 Korean Library Standar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9] Korea Publishers Society E-book TFT. 2010. *Guidebook of e-book for publishers: 55 things publishers should know about e-book*. Seoul: Korea Publishers Society.